내근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연중 제26주일 2016.9.25.(다해) 제2018호

편집 및 발행│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053)250-3048~9_http://www.daegujubo.or.kr



매천성당 〈사진: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루카 16,24)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흥청거리며 살아가는 삶의 끝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는 크신 자비와 용서로 사람들의 악행을 참아 주고 계십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처럼 위로와 고초가 뒤바뀌는 하늘 나라를 생각하며, 가난한 우리 이웃을 잊지 맙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제1독서 아모 6.1ㄱㄴ.4-7 **제2독서** 1티모 6.11ㄱㄷ-16 **복 음** 루카 16.19-31.

입 당 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화 답 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화살기도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의 비유

정래곤 안드레아 신부 | 침산본당 주임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에 관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전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비싸고 좋은 옷도 주저하지 않는, 호화로운 식탁을 차리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신 이외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그래서 자기 집 문간에 종기투성이의 몸으로누운 채 굶고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를 돌볼 생각은 전혀 없는 부자입니다. 반면에 복음에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서 하느님만이 그를 기억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는 다르게 이 사람은 이름이 전해집니다. "엘레아자로"라는 이름의 축약형인 "라자로"는 그 뜻도 다름 아닌 "하느님께서 그를 도와주신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잊혀진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 가치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귀하디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고된 삶을 마친 뒤에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한 행복 안에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말씀하셨던, "행복하여라, 가난한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루카 6,20)라는 말씀대로 말입니다. 반면 부자는 저승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주지 않았다."(마태 25,41-43)라는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성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모습에 따라 결정된다.'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하느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시성되신 성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나 9월 27일에 축일을 지내는 성 빈 첸시오 드 폴 신부님처럼 굶주린 이들과 헐벗은 이들과 머물 곳이 없이 떠도는 이들, 불구와 눈 먼 이들과 나환자들,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이들, 사회에서 오외되고 짐이라 여겨지는 모든 이들을 주님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 애 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아멘.

2016년 세계 관광의 날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담화문(요약)

모든 이를 위한 관광-보편적 접근성의 증진

세계관광기구(UNWTO)는 관례에 따라 9월 27일에 거행하는 2016년 세계 관광의 날의 주제를 "모든 이를 위한 관광-보편적 접근성의 증진"으로 정하였습니다. 성좌는 세계 관광의 날 제정 이후 이 행사에 늘 함께하며, 관광이 지닌 중요성과 관광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와 복음화를 위한 기회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휴가를 즐길 기회를 누리는 이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에 따라 삶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관광의 많은 장점과 커다란 잠재력과 더불어 그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관광에부정적이거나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관광이 인간을 위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교회의 교도권에 따라 우리는 관광을 기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권리이며, 특정 사회 계 층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될 수 없는 것으로 여 겨야 합니다. 세계관광기구는 관광이 "온 인류 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는 기회이며 …… 어떠 한 장애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모든 이에게 이 권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여기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본 욕구조차 보장되지 않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관광의 권리는 동떨어진 것으로, 심지어 이를 논하는 것이 경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관광

이 빈곤에 맞서 싸우는 데에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에서 조차 사회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관광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른바 "모든 이를 위한 관광"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모든이, 곧 정치인, 기업인, 소비자, 이 분야의 관련단체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는 "모든 이를 위한 관광"을 위하여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 곧 "개인의 실현과 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교회는 이론적 숙고와 (창의적인 것도 많은) 구체적 계획을 통하여 기 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경제적 자원 의 한계가 있어도 많은 노력을 통하여 이룩한 그러한 기여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모든 이를 위한 관광"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의 증언"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의장 **안토니오 마리아 벨리오** 추기경 사무총장 조지프 **칼라티파람빌** 주교

교회문화산책

김종헌 신부의 '나의 주님, 나의 노래' 순교 선조 자랑 말고 선조들이 자랑하는 후손이 됩시다

김종헌 발다살 신부 | 대구평화방송 사장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9월 순교자성월을 맞아 큰 소리로 그리고 자랑스럽게 부르는 성가입니다.

『가톨릭성가』283번 '순교자 찬가'는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 한국순교자들의 신 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곡은 '복자 찬가'라는 제목으로 1925 년에 시복된 복자 79분과 1968년 복자품에 오르신 24분, 도합 103

분의 복자를 기리기 위해 최민순 신부님이 가사를 쓰시고 이문근 신부님이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5월 6일,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03위의 복자들을 성인품에 올리신 것을 계기로 제목을 '순교자 찬가'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도막 형식의 내림 마장조, 4/4박자로 구성된 이 곡은 안단테 모데라토(Andante Moderato, 조금 느린 보통 빠르기)의 속도로 노래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칼 아래 스러져 백골은 없어도" 부분에서는 조금 여리게 노래하면서 성인들의 죽음을 애도하지만, 전반적으로 포르테(forte, 강하고 웅장하게)로 노래해야 합니다. 이 곡에서 특별히 조심할 곳은 "백골은 없어도" 가사 중 "골"의 가음에 붙어있는 제자리표 부분입니다. 곡의 변화를 위해 임시로 붙인 제자리표를 제대로 노래해야 합니다.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한국 교회의 큰 자랑입니다. 더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100여 년 동안 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증거하며 일만여 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사실은 온 세계가 치하하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자랑스러운 후손입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는 모습을 선조 순교자들이 자랑할 수 있도록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조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후손답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우리를 그분들께서 자랑하시도록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순교자 찬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题

햇볕 한 줌

거리에서 피어난 꽃



뉴욕 브루클린의 차가운 쓰레기 더 미 속에서 한 여자 아이가 세상을 향 해 힘찬 울음소리 를 터트렸습니다. 엄마 나이 14살. 아 빠가 누군지도 모

르는 사생아로 태어난 그녀는 14살의 어린 엄마와 함께 거리를 전전했고 자선단체에서 나눠주는 무료 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컨테이너 박스나 노숙자 쉼터에서 머물렀고 때론 노숙자들의 위협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이름은 '노숙자'가되어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해! 열심히 공부해서 오프라 윈프리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마약과 매춘부, 냄새나는 길거리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라난 그녀였지만 언제나 희망만은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샤워를 한 뒤냄새가 나지 않는 옷을 입고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런 소녀를보고 거리의 포주들이 놀렸습니다. "노숙자 주제에 무슨 학교야?", "얘 나랑 같이 일이나 하자.", "전 대학에 갈 거예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뭐 대학?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대학에 들어가 운명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며 매달 네다섯 권 의 책을 읽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사회단체와 장학재단에 도움 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절박했던 소 녀의 편지에 감동한 단체들은 그녀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그녀는 순조롭게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운, 컬럼비아, 하버드 등 미국 전역 20여개의 명문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목표를향한 열정에 감명받은 하버드대학의 입학 사정관은 "당신을 뽑지 않으면 우리는 제2의 미셀오바마를 잃는 것입니다. 하버드가 부디 그런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마침내 하버드라는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퍼슨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 한 번도 가난을 핑계대지 않았습 니다. 가난이 결코 변명꺼리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노숙자였던 그녀의 이름은 '카디자 윌리암스(Khadijah Williams)', 그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과 불행에도 꿈과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꿈에 그리던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했으며 2013년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워싱턴 D.C의 교육공무원이 되어 홈리스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합니다. 题



교구 행사

■ 대건중고등학교 개교 70주년 기념미사



대건중고등학교 개교 70주년 기념미사가 9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 대건중고등학교 내대건관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한티가는 길 개통식



사진제공 : 월간 (빛)

가실성당에서 한티순교성지까지 45.6km 거리를 순례하는 한티가는 길 개통식이 9월 10일(토) 오전 10시 가실성당에서 열렸다.

■ 대구평화방송 개국 20주년 기념미사



대구평화방송 개국 20주년 기념미사가 9월 9일(금) 오후 5시 주교좌 계산성당에서 조환 길(타대오) 대주교와 사제단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신임 주교 연수



장신호(요한 보스코) 보좌주교는 9월 3일(토) 부터 19일(월)까지 바티칸에서 열린 신임 주교 연수에 참가하였다.

〈생명사랑운동 참여 방법〉

1. 가정 성화 및 생명 수호 미사 참례

기간: 1월~11월(매월 마지막 월요일 11시)

장소: 성모당

특전: 자비의 희년 전대사 부여

2. 생명사랑 기부 참여

특별 기부(개인 및 단체) / 일반 기부(매월 5천원 이상 기부) 계좌번호: 대구, 505-10-173562-7 / 국민, 612901-04-

227935 / 농협, 301-0183-4632-01

문의: 053-250-3011

가음들력을 바라되며

박성규 엘리지오



미 사 안 내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9월 26일(월) 11:00 수성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9월 28일(수) 10:00 죽도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26일(월) 11:00 도량성당		9월 28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대구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9월 26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28일(수) 10:00 평화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9월 27일(화) 14:00 신암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9월 28일(수) 19:00 성의여고경당
	9월 27일(화) 19:30 다사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10월 1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3대리구 성경암송발표대회

일시: 10.23(일) 14:00

장소: 월성성당 내 문화관 대강당

마감: 10.11(화) 문의: 각 본당 사무실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10.2(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첫토요일 성모 신심 소피정

일시: 10 1(토) 10:00. 진량성당 내용: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버스운행: 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 9:30

문의: 진량성당, 856-7676

성령봉사회 1박 2일 치유 피정

기간: 10.8(토) 13:00~9(일) 14:00 장소: 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강사: 서울대교구 선교사 황인숙(마리아) 피젓신청 필수(무료) / 운행차량 없음 신청: (054)954-0951 / (010)4461-4419

맑은 숲 가족 피정

일시: 10 22(토) 10:00~16:30 장소: 군위 소보둥지(미사 포함) 대상: 가족 / 회비: 1인 3만원

교육 | 모집 | 기타

신청: (010)2649-2045

대가대 차이나포럼 제24기 원우 모집

개강: 9.26(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원(6개월 과정)

가톨릭근로자회관 10월 영어성경공부 모집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개강: 10.4(화) / 월 3만원(교재비 별도) 창세기: 월. 수 10:10 / 14:50 / 17:00 야고보·룻기: 화. 금 10:10 룻기·티모테오: 화. 목 19:10 집회서: 목 10:10 / (010)2578-553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 동화구연 2급, 오카리

나. 수지침. 원어민영어. 필라테스. 발 성법. 가곡성가. 하모니카성가. 미술 심리상담 2급. 시·수필. 왕초보관광영 어. 제대·사범꽃꽂이. 클래식기타

신청: 254-6115

빛떼제 기도

일시: 10.8(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떼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286-2247

제49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2017.1.3~2.5(3, 5주 선택) 세계·아일래드 학생들과 함께 수업 대·일반: 2017 1 3~2 12(6주 장기 선택) 세계 학생들과 함께 수업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 · 덴마크 · 독일 보청기 **동 인 점** 최준우 미카엘 김은연 세실리아 ත053)257-8588 ☎053)421-8588

NAVER 밝은귀보청기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 심 내 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자기주도학습전문 독서코칭 · 시험코칭 다중지능검사

UP학습코칭 · 논술

윤 종 선 (가밀로)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UP학습코칭 검색

[Book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 용 현(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위·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5대암) 원장 이관식(루까) · 원장 서영익(미카엘)

2호선 경대병원역 1번 출구 앞 2층

마더 데레사 시성 감사미사

일시: 9.26(월) 11:00

장소: 성모당

주례: 교구장 조화길 대주교

행사 | 모임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가난한 이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9.29(목) 14:00 기도, 13:00 미사

장소: 삼덕성당

한티순교성지 매일미사

시간: 매일 11:00

장소: 순례자성당(점심 예약가능)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대곡성당 제2차 성체신심 세미나

기간: 10.4(화)~7(금) 20:00~22:00

장소: 대곡성당

봉헌식: 10.9(일) 14:00~16:00 장소: 월막피정의집 / 문의: 643-5600

제30차 교구 울뜨레야

일시: 10.15(토) 9:00

장소: 성김대건 기념관

주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문의: 꾸르실료. 254-4671

젊은이 성령 세미나

기간: 10.28(금)~30(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만 19세~35세 청년

주최: 교구 청년국 젊은이 기도회

신청: cafe.daum.net/youngbless

문의: 김정훈, (010)9584-8595

교육 | 모집

소공동체 체험수기 공모

기간: 7.29(금)~9.30(금)

내용: 소공동체 활동에서 체험했던 내용 제출: 교구 사목국(samok@dgca.or.kr) 문의: 250-3056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워고료를 드립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트리 모집

대상: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검정고시지원, 진로탐색

위치: 지하철 1호선 교대역 3번 출구

문의: 대구가톨릭청소년대안교육센터

(010)9177-6858 / cumtree@daum.net

대구ME주말_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5차 ME주말: 10.21(금) 19:00~23(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60세 이하)을 찾습니다.

연습: 첫째, 셋째 일요일 17:00

나머지는 토요일 19:00 문의: (010)3817-1963 / (010)3516-1911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과목: 발성법, 가곡교실, 성가반주법 장소: 프란치스카눔 / (010)9100-4114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병원 검진센터 이전 오픈

새롭게 단장한 종합검진센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진실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치: 암센터·장기이식센터 5층

문의: 650-4114

대구평화방송(FM 93.1) 10월 라디오 프로그램 안내

신부님과 신자들이 직접 출현해 들려주는 우리본당 이야기 '본당순례: 우리본당은요'(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방송시간: 매주 토 오후 6시 5분~7시 (주파수: 포항 96,9MHz, 김천 100,5MHz, 안동 100,7MHz)

10월 1일 신서본당

10월 8일 산격본당

10월 15일 고성본당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소화기 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첫추·관절및 뇌·신경클리닉 □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두통,어지럼증,손발저림,진전,요통 좌골신경통,목,허리 디스크,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류마티스,오십견,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대구연세안과

아이디자인라식 · 렌즈삽입술 · 노안수술 ·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mark>박중원</mark>(소시모)

면 연세대외래교수 원장 <mark>막중원</mark>(소시모) **☎053)626-8881~5**

전인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진료 일반외과, 혈액종양내과, 재활의학과 과목 마취통증의학과, 한방내과

병원장 손 기 철(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대표전화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AMEL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꼬)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한 뇌전증 학회장 역임 대구 경복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2 053)252-0418**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선화 U53J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니더십&발표력&자신감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